

# “혹여 선거법 걸릴라” 곳곳 ‘조심 바이러스’

버스 파업에 무료 운행 전세버스 선거법 위반 우려 돈 받아

나주 혁신도시 이주 직원들은 설 명절 떡국 나눔 행사 포기

출판기념회 초대장 선거법 운용기준 변경에 형평성 논란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장이나 선거 후보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을 너무 의식해 곳곳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30일부터 1주일 동안 임차한 전세버스 18대를 동원해 나주시 읍·면·동 18곳에서 출발, 광주시 백운동 모자보건센터를 왕복하도록 했다. 18대의 버스는 하루 평균 158회 광주와 나주를 오갔다.

그러나 처음에 무료였던 이 버스에 지난 4일부터 나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공무원들이 전세버스 한 대당 오전과 오후 각각 1명씩 탑승, 시민들에게 운행료로 1200원을 받기 시작한 것.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항 역시 한 몫을 했다.

에초 시는 ‘무료 버스’를 운영하면서 나주시 선관위에 질의해 “긴급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명의로 대체 교통수단으로 선거구민에게 차량

제공은 무방하지만, 기존 나주교통의 버스 노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나주시는 무료로 운행했다가 혹여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될지 몰라 1200원씩을 받은 것이다. 나주교통 버스는 6일부터 운행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시기, 혁신도시 입주기관에 설날 축하 현수막과 떡국 행사등을 계획했다가 포기했던 이유도 사회 소외 계층이 아닌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벌였다간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우려가 깔려 있었다는

게 나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일시간에 대한 선거법 기준 변경도 논란이다. 지난해 우후죽순 열린 선거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 행사에서는 초대장이 문제가 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얼굴사진이 들어간 초대장 3000여매를 발송한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과 2000여매의 초대장을 발송한 윤봉근 의원(광산구)에게 ‘공직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내렸다.

당시 얼굴이 들어간 초청장은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었다. ‘준수 촉구’는 ‘경고’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행정 조치로 벌금 등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같은 달, 역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자신의 초청장에 얼굴사진을 넣은 광주지역 모 시의원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행사이며, 이걸 알리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 수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의원의 경우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지만, 이미 적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한파 녹이는 무료 배식봉사 활동

5일 오후 광주여성발전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쌍촌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매주 2차례 실시하는 무료 급식봉사에 참여, 6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식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7분 해질 18시 05분 달출 11시 15분 달몰 00시 08분

**누그러진 한파**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눈 오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맑음	-4/3℃
목포	구름맑음	-4/2℃
여수	구름맑음	-1/3℃
나주	구름맑음	-5/2℃
완도	구름맑음	-2/2℃
구례	구름맑음	-5/2℃
강진	구름맑음	-4/2℃
해남	구름맑음	-4/2℃
장흥	구름맑음	-4/2℃
순천	구름맑음	-1/3℃
영광	구름맑음	-6/2℃
진도	구름맑음	-2/2℃
전주	맑음	-4/4℃
군산	맑음	-4/3℃
남원	맑음	-6/3℃
혁신도	구름맑음	-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치수 동파치수 뇌졸중치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1.0~2.0m 높음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1.0~2.0m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5m 1.0~2.0m 목포 06:49 11:4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0m 1.5~2.5m 여수 01:21 07:10  
13:25 19:44

◇주간날씨 기상내년전환: 국면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씨						
최저/최고	-3/9	1/7	-3/5	-3/5	-5/5	-4/6

## 올해 광주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 남성 합격자 비율 30%선 또 붕괴

시교육청, 136명 최종 선발

광주지역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남성 합격자 비율이 낮아져 또 다시 30%선이 붕괴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최종 합격자로 136명을 선발했다.

남녀 비율은 남자 39명(28.7%), 여자는 97명(71.3%)으로 전년도에 비해 남성비율이 3% 포인트 떨어졌다.

중등교사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은 2010년 33.9%에서 2011년 23.4%로 낮아졌다가 2012년 35.7%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31.8%로 30%를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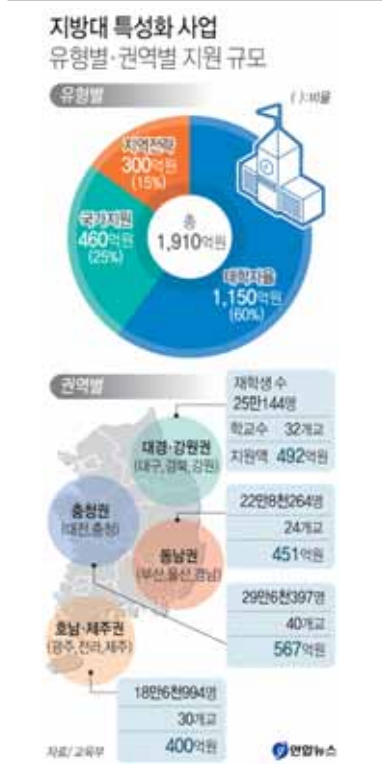
초등교사는 여초(女超) 현상

이 더욱 심각하다. 초등교사 남성 합격자는 지난해 31.5%에서 올해 27%로 감소했다. 초등교사 남성 비율은 2009년 26%, 2010년 26%, 2011년 25%, 2012년 26.8%로 30%를 넘지 못했는데 지난해 31.5%로 30%선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과목별 남녀 교사 선호도와 선발 예정 인원의 남녀 지원도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녀 성비가 어느 한 쪽에 과도하게 치우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남자 교사의 역할이 증시되는 상황에서 남자 교사의 합격비율이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정열기자 jwpark@kwangju.co.kr



## 지방대 특성화 사업 5년간 1조원 푼다

호남·제주권 30개교 400억 등 매년 2031억씩 지원

입학정원 최대 1만4000명 감축도...2년 뒤 중간평가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2031억원으로, 5년간 1조원 이상 이 지방대 육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의 지방대가 혜택을 입는 한편 사업을 통해 최대 1만4000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와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0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

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구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했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또 부산·울산·경남권(22만8264명, 24개교)에 451억

원, 호남·제주권(18만6994명, 30개교)에는 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사업단 평가지표는 기본여건(15점),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을 합산해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50%씩으로 나눴다.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되더라도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대 최대 1만4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며, 수도권대를 포함할 경우 최대 2만명, 최소 7000~800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석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서울대학교법대졸업 공공기관대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사선동) (063) 275-7766

## 임페리얼 클럽